

# “스마트 그린도시 도약...새로운 시대 열겠다”

## 2022 새해실경

### 문인 북구청장

“작은 흙이 쌓여 큰 산을 이룬다는 ‘토적성산’의 각오로 다 함께 잘사는 행복 북구의 결실을 맺고, 상생 스마트 그린 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문인 광주시 북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3년 반은 민생경제, 구민의 안전, 생활인프라 확충을 중심에 두고 지역의 주요 현안을 분과도에 진입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을 다한 기간이었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빼앗긴 소중한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고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의 과제를 선도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정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돼 있는 민생경제의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창업기업의 위기를 적기에 진단하고,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경제 반등의 주역으로 성장을 도모하겠다

## 코로나로 침체된 민생경제 포용적 회복 중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안전망 구축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등 탄소중립 전환 선도

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특화기업 지원과 산학연 클러스터의 연대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역동성을 더욱 높여 나가며, 골목형 상점가를 본격적으로 발굴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생업유지 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문 정장은 또 영구임대단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사회·복지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전과 리모델링을 통해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며, 여성친화도시 3단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여성의 삶과 육아에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중·고 신입생 입학 준비금 도입으로 보편적 교육정책에 앞장서며, 어르신과 장애인 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저신용자 서민 금융 종합상담을 제공해 소외계층의 자활 기반 강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아울러 문 흥동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재난 안심 기반시설도 구축한다.

문 정장은 올해 마을금 격차를 해소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역 일원과 임동 등 구도심에 추진 중인 대규모 재생사업의 완성을 더욱 높이고, 두암·양산지역 도시재생예비사업과 오지·문흥·매곡·용봉지역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본격 추진해 권역별 경쟁력과 힘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



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마을 곳곳에도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통해 에너지 자립 도시로 조성해 나가는 등 온실가스과 미세먼지 감축활동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전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

며, 인공지능 주차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정식 운영 등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확산하기로 했다.

문 정장은 “올해는 20년 만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한 해에 실시되는 해이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원년의 해다”며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풀뿌리 자치를 완성해 나가고, 구민의 소중한 의견이 구정에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구민 소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SOC 복합화 시설 5개소와 북구종합체육관을 올 상반기 내 차질 없이 준공하고, 운암동 생활인프라 조성 속도를 높여 대규모 투자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비엔날레 문화광장 빛 브랜드와 사업과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스마트 전시 콘텐츠 운영 등으로 문화 예술과 디지털이 융합된 관광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민생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최환준 기자

## 지투리 소식

### 남아 학대 피해아동쉼터 개소

광주시 북구는 최근 남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인 ‘광주민들레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아동쉼터는 전용면적 128㎡ 규모이며 침실과 심리치료실 등을 갖춘 비공개시설로 아동 7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다.

임상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6명이 근무하며 학대로 인해 분리조치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신안정, 정서치료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쉼터에서 정서적 안정을 갖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산·돌봄 최우수 자치구 선정

광주시 북구는 광주시가 주관한 ‘출산장려 및 돌봄 정책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저출산 대응과 양육 친화분위기 확산을 위해 실시됐다.

북구는 지난해 찾아가는 놀이돌봄 프로젝트, 꿈나무실내놀이터 조성, 저출산 대응 홍보영상 제작 및 생애주기별 인구학교 운영 등 다양한 저출산 대응 사업을 펼쳤다.

문인 북구청장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출산장려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광주시 북구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북구청 세무2과로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 또는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한 자동차세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 이전 및 말소일자를 기준으로 환급 처리 된다.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모집

### 정책제안·홍보활동

광주시 북구는 오는 26일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제6기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50여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 속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제안 등을 통해 주민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 소통 시책이다. 참여대상은 북구에 거주하고 여성친화정책에 관심 있는 주민이다.

참여신청은 북구청 누리집을 참고해 북구청 여성가족과로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정책제안, 양성평등 관련 주민 의견수렴, 생활 불편사항 모니터링, 일·가정 양립 홍보활동 등을 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각종 교육과 워크숍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정, 활동 우수자 표창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여성이 행복해야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만큼 시민참여단과 함께 여성의 안전과 배려가 보장되는 북구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설 맞이 정나눔 행사 최근 광주 북구청에서 열린 설 맞이 정나눔 행사에서 구청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관내 돌봄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에 보낼 쌀과 생필품 등의 위문품을 정리하고 있다. /북구제공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광주시 북구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직접 접하게 되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총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 이뤄졌다. 등급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

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의 종합점수에 따라 5개(가-마)로 나뉜다.

북구는 226개 기초지자체 중 최우수인 ‘가’ 등급을 받으면서 민원서비스 수준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민생현장 방문의 날, 랜선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점과 광주시 자치구 최초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환준 기자

## 설 연휴 ‘주민생활안정 종합대책’ 추진

### 코로나 확산 방지 활동 등

광주시 북구는 설 명절 기간 동안 2개 분야 10개 과제의 ‘주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다음달 2일까지 특별 방역주간으로 정하고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활동을 펼친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안전사고와 재난에 적극 대응한다.

코로나19 종합상황실과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하고 6곳의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교통안전상황반을 운영해 연휴기간 귀성객과 성묘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명절 당일 국립5·18민주묘지와 영랑공원 등 일원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한다.

일제 대청소, 노상적치물 정비 및 생활쓰레기 수거 등 쾌적한 도시미관과 생활환경 조성에 힘쓴다.

행정민원과 주민 불편사항 발생에 대비해 14개의 무인민원발급기와 북구 대표성객과 성묘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 광주광역시 선점 맛집

## 다미정의 밥도둑 '구운 보리굴비'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 최고의 정성!

‘다미정 보리굴비’는 엄선된 보리굴비를 전남 영광군 법성에서 천혜의 해풍으로 건조하였습니다. ‘다미정 보리굴비’는 다미정에서 직접 구워 찐 굴비와는 달리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고, 맛이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겠습니다.

#### 보리굴비정식

‘다미정’에 오시면 정직한 일반인과 함께 맛있는 보리굴비정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 구운 보리굴비 선물세트

(※ 모든 굴비는 주문을 받은 후 구워 1마리씩 진공포장 하여, 아이스팩과 함께 선물가방에 담아 배송합니다)

다미정 예약 및 구입 문의 062) 682-5516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28번길 73 (풍암동 1153-14)